

50. 섬유제품 소비과정에서의 클레임사례와 시험방법(16) - 봉목 활탈, 버블링-

□ 봉목 활탈

○ 소재

- 어떤 소재에도 생기기 쉬우나, 필라멘트사로 섬도가 적고, 제직 밀도가 적은 것에 발생하기 쉬움. 또 봉제 면에서 살펴보면, 침수가 성긴 것, 시접에 여유가 없는 것은 봉목 활탈이 생기기 쉽고, 봉목이나 시접을 심지로 보강한 것은 봉목 활탈이 잘 생기지 않음. 특히 올 미어짐이 생기기 쉬운 원단은 봉목 활탈이 생기기 쉬움.

○ 외관

- 어깨나 옆구리, 진동둘레 등 착용시에나 세탁시에 외력이 가해지기 쉬운 장소에 발생함.
- 바닥실 꿰김이라든가 재봉사 꿰김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는 확대관찰로 구별할 수 있음.



○ 시험

- 봉목 활탈은 외관관찰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은 사고품이 봉목

활탈을 일으키기 쉬운 원단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시험함. 즉, KS에 규정된 활탈 저항력시험, 섬도, 제직밀도를 측정함.

- 활탈저항력시험, 섬도에 대한 시험은 비파괴로 시험할 수 없으나, 제직밀도는 "제직(편성) 밀도로부터의 치수변화율 측정법"의 밀도측정에 의하여 비파괴로 측정 가능함.
- 외관관찰에 의하여 봉제의 상황(침수, 시접의 폭과 시침바느질 유무, 보강 유무 등)도 확인하여 둘 필요가 있으나, 재현시험 결과가 봉목 활탈을 일으키기 쉬운 원단인지의 여부가 가장 유력한 판단요인이 됨.

□ 버블링

◦ 소재

- 버블링은 심지와외의 접착불량 또는 기포와 겉감의 현저한 치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함. 심지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는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소재는 기본적으로 어떤 소재에도 일어날 수 있음.
- 소비과정에서는 가정세탁 또는 클리닝시(세탁소 세탁, 텀블건조, 다림질 등) 생기는 경우가 많음.

◦ 외관

- 심지와외의 접착불량이 원인인 경우에는 심지의 접착부위가 전체적으로 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기포와 겉감의 현저한 치수 차이가 원인인 경우에는 주름이나 부풀어 오름이 생기고 있다는 점, 접착부위가 박리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음. 또, 부위는 가정세탁, 세탁소 세탁, 텀블건조의 작용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생기고, 다림질시에는 부분적으로 발생됨.



◦ 시험

- 기포와 겉감의 현저한 치수차이에 의한 경우, 겉감에 치수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만제품과 동등한 신품이 있으면, 제직(편성) 밀도로부터의 치수변화율 측정으로 확인할 수 있음.
- 불만품이 신품과 비교하여 신장되어 있으면, 기포와 겉감의 현저한 치수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음.
- 파괴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심지의 치수변화율이라든가 재현시험을 함.
- 심지와 접착불량인 경우에는 재시험을 할 필요가 있음. 이때 접착제의 종류라든가 처리조건을 알 수 있으면, 재현시험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사고 발생상황, 처리조건 등을 조사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함.